

# 80년대는 70년대의 연장일 수 없다

## 민주정의당 대통령후보 선거연설

1981년 2월 10일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본인은 오늘 어느 때보다도 기쁜 마음과 감사한 심경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무엇보다도 먼저 본인이 방미길에 오를 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도에 나오셔서 환영해 주셨고, 열흘간의 방미기간 중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셨으며, 다시 귀국길에 올라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열렬히 환영해 주신 시민·학생 여러분과 전국의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의 미국방문 일정의 순조로운 진전과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을 한마음 한뜻으로 밀어주셨던 국민 여러분의 성원은 본인에게 더없는 용기와 신념을 주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우방 미국과의 신뢰와 우의를 보다 깊고 높게 하는 데 결정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국가목표를 향하여 함께 뭉쳐 밀고 나간다면,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있더라도 이를 이겨내고 우리 모두가 바라는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 정의가 지배하는 복된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인은 확인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본인의 이러한 신념에 국민 여러분께서 전폭적으로 동의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10·26사태」 이후 극한상황에 이르렀던 국가적 위기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슬기롭게 극복하여 온 지난 1년여의 기간을 오늘의 시점에서 되돌아 보면서 본인은 특히 이번 방미가 오늘의 우리와 우리 나라의 밝은 앞날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 기쁘게 생각하며, 마음 든든히 여기는 바입니다.

본인의 방미 결과로 주한미군의 철수계획은 명백히 철회되었으며, 한반도의 안정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를 위한 한·미양국의 협력관계는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곧 안보·외교·경제·문화 등 각분야의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제반 협의가 진행될 것이며, 한·미양국은 상호 신뢰와 호혜의 바탕 위에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동반자로서의 결속과, 새로운 아시아·태평양시대의 질서를 주도하는 주역으로서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본인이 「레이건」 대통령과 회담을 마침에 있어 미합의 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이 없이 완전한 의견일치를 함께 확인한 사실은 본인이나 우리 국민에게 있어서 매우 뜻깊은 일로서 양국관계의 발전을 고무적이고 함축성있게 시사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한 마디로 우리의 안보와 통상, 경제협력과 문화교류에 있어서 긴요한 동반자인 미국과의 사이에 우리가 경험했던 70년대의 「불편한 관계」는 이제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가까운 나라, 일본과도 「불행한 과거」를 씻고 참다운 이웃간의 선린관계로 발전시키는 계기와 노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지난 70년대를 통하여 나라 밖으로나 나라 안에서나, 비록 어떠한 갈등과 불신의 요인이 쌓여 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처럼 서로 가슴을 열고 모두가 힘을 합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h하합과 신뢰는 실현·회복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진정한 새 시대의 의미인 것입니다.

새 시대, 80년대는 70년대의 연장일 수 없습니다. 찬반논쟁을 불러 일으키던 체제는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70년대의 반체제가 80년대에 연장될 하등의 이유도 명분도 없으며, 따라서 새 시대는 새 민족사 창조를 위한 화합과 신뢰의 연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은 이번 방미기간 중 「레이건」 대통령과 「발트하임」 유엔사무총장에게 본인의 「1·12제의」를 설명하였으며, 그들은 이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와 공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인은 “김일성이 북한방문을 초청한다면 내가 평양을 먼저 방문할 용의가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러한 충정은 남북간의 긴장 완화나 그밖의 모든 문제도 서로간의 신뢰가 바탕이 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인은 어떤 나라, 어떤 사회도 그것을 지탱하는 근원적인 힘은 믿음과 신뢰 속에서부터 싹튼다고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

본인은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어릴 때 일제통치의 압박속에 고향을 떠나야 했던 부모님을 따라 한때 만주땅까지 이주했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라 잃은 백성들의 한과 설움을 보았습니다. 얼마 뒤 “좋은 싫든 타국에 들어가서는 살 수 없다”는 부모님의 결심에 따라 국내에 돌아온 뒤, 가난한 살림으로 학교에 들어가 지 못한 채 하고픈 공부를 자습하던 어린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후 학교에 복학한 뒤에도 신문배달을 하면서 어둠 속에 밝아오는 새벽길을 뛰던 소년시절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커서 군인의 길을 걷게 된 것도 나라의 소중함을 가슴깊이 새겼던 어린시절의 영향이 컸었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장과정을 거친 본인의 소박한 소망은 모든 가난한 사람도 의·식·주에 걱정이 없는 사회, 질병에 걸렸을 때 누구나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정의와 불의가 분명히 구분되는 사회, 말못할 억울한 사정이 있는 자가 말할 수 있는 사회가 이루어져야 하며, 남의 지배나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나라를 이룩해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에도 변함이 없는 본인의 일관된 소망이며, 또한 우리 모두의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이 소박한 꿈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소박한 꿈을 실현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다 큰 민족적 이상의 실현에 우리의 슬기와 함께 땀을 쏟아야 할 때가 왔다고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계사와 한반도의 주변정세도 오는 80년대는 강대세력간의 각축과 격돌을 배제할 수 없는 거치른 파동과 위기의 연대일 것입니다.

본인은 이 연대가 우리 모든 국민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려는 커다란 창조의 열기속에 나라의 힘과 민족의 에너지를 집결시켜 자주민족국가의 완성을 뜻하는 「위대한 한국」을 창조하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20세기의 남은 연대에 우리 나라를 선진기술공업국으로 올려 놓아야 하며, 우리의 민주적 민족적 역량을 모으고 키워 평화통일의 기반을 기필코 이룩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경제대국이 된 일본과 해협을 경계로 하고 있고, 거기다가 근대화를 서두르는 10억 인구의 중공과 초강대공산권 소련 사이에 위치한 한국은 분명히 이 정도의 현상만족으로 머무를 수는 없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0년간의 우리 근대사를 생각할 때, 그것은 고난과 시련을 극복해 온 역정이었습니다만, 그 일관된 소망은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부강한 민주·복지의 자주국가를 세워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과업은 아직 성취되지 못하였습니다. 민족분단으로 비극은 3분의1세기가 넘게 계속되고 있고, 경제발전은 아직도 부강의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며, 복지사회의 기틀도 튼튼히 닦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과업은 우리 아닌 다른 사람이 대행하여 줄 수도 없으며, 다음 세대에 넘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역사의 주인은 바로 우리이며, 우리에게서 이제 이를 실현할 힘과 터전이 마련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화합과 신뢰의 바탕 위에 마음과 힘을 합쳐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보기 사회,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보람찬 창조적 새 시대를 힘차게 펼쳐가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작년 하반기에 단행했던 일련의 사회개혁이 커다란 아픔을 수반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갈등과 불화의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여 화합과 신뢰의 바탕을 이룩하는 일대사회구조적 수술이었습니다.

수술이란 고통덩이를 제거하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일부 생살이 같이 묻혀 제거되기도 하며, 여기에는 더없는 아픔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에도 이를 수 있는 환부를 가진 이상, 이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은 단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화합과 사회정의를 저해하는 요인은 그것이 구조적으로 축적된 후, 이를 수술하는 방법이 아니라, 깨끗한 정치, 깨끗한 정부에 의하여 지속적이고 제도적으로 사전예방되어 근면·정직·성실한 사람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합리적인 사회를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본인은 극심한 사회혼란과 국가적 위기 속에서 조국의 부름을 받아 최선의 봉사를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나라와 민생이 시련과 파탄에 직면했을 때 이 부름을 받고 본인은 이를 회피할 수 없다는 의무감과 양심으로 소명에 응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다행히 모든 분야에서 시련과 위기의 고비는 넘겼으며, 안정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화해의 바탕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이제 과거의 부담과 불편한 관계가 해소되고, 새로운 「아시아·태평양 협력 시대」의 개막을 위한 한국의 새로운 역할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눈앞에 새로운 역사의 지평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맺은 자가 풀어야 한다」 즉, 결자해지라는 옛말을 되새겨 보면서 본인은 본인에 대한 나라와 국민 여러분의 소명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후보가 될 것을 수락하였습니다.

대통령이 7년간 단 한 번만의 임기로 그치도록 되어 있는 제5공화국의 헌법은 본인이 후보

를 수락하는 데 더 큰 역사적 사명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프랑스」가 대혁명 이래 백 92년이 지나는 동안 오늘날 제5공화국의 헌정이 실시되고 있는 데 비하여, 우리가 불과 33년의 짧은 헌정사에서 제5공화국의 헌정을 갖게 되는 것은 과거 우리 민주정치의 파란과 방향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쓰라린 파란과 향방없는 방향에 종지부를 찍고 민주주의를 우리의 풍토 위에 토착화해야 할 때입니다.

민주주의는 무엇보다 평화적 정부의 교체로부터 그 뿌리를 내릴 수 있으며, 그것은 새 시대에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규범이자, 본인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평화적인 정부계승의 길이 트여질 때, 과거와 같은 헌정의 악순환은 자연 단절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은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민주정의당의 당적을 갖고 대통령후보 지명을 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우리 역사적 과업을 힘차게 추진하고, 민주정치를 뿌리내려 가기 위해서는 그 주도적 정치세력이 있어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것이며, 어떠한 특정 정당의 차원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 기회에 밝혀 두고자 합니다.

새 시대의 국정은 국민 모두가 하나의 「위대한 시대」를 만들어 가는 데 자기의 능력과 직분을 통하여 참여하는 화합과 창조의 바탕 위에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소신입니다.

이에 따라 제5공화국의 국정은 정당이나 정파의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화합과 참여를 실현하는 거국적 차원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정부나 모든 분야에서 능력있고 양심적인 인사를 포용하고 등용하며, 정견과 소속정당에 관계 없이 광범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새 시대는 우리 모두가 나라를 위하여, 이 사회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역사를 위하여 참여하고 일하며, 격의없는 토론을 벌이는 시대이어야 합니다.

선동과 부정, 방관이나 저항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라는 모습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한 창조의 연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 우리는 건설적인 비판과 다양성을 최대한 수용하며, 토론의 열기 속에 민주사회의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사회 각 분야에 안정이 정착되고 있습니다. 지나간 시련이 곧 우리 국민 모두의 고통이었던 경험에 비추어서도 다시는 모처럼 이룩한 이 안정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야겠습니다.

국민에게 안정을 가져다 주는 일이야말로 정부의 제1차적 책무이며, 모든 국민에게 정치·경제·사회와 국민생활에 있어서의 안정의 확보를 국민 여러분들에게 공약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국가안보는 한·미·양국의 긴밀한 안보협력체제를 바탕으로 어떠한 침략세력도 무력도발의 유혹이나 망상을 거두어들이 수밖에 없는 태세를 갖추도록 자주적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우리가 침략을 물리칠 힘을 가질 때 비로소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동안 모든 국민들은 경제성장의 감퇴와 경기침체로 고통을 당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이 침체가 석유가의 폭등 등 국제적 요인, 과거의 방만했던 팽창위주의 경제운용,

그리고 사회혼란 등 경제외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임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수출이 크게 호전되고 경기가 활기를 되찾게 될 조짐이 여러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음은 고무적이며,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엔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고통을 함께 나누어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겠다는 국민적 노력과 협조가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제는 이러한 국민의 저력을 바탕으로 올 하반기부터는 성장세를 회복하여 또 한번 힘찬 도약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의 방미기간 중 부총리 등 경제관계자들이 별도로 미국측과 경제관계를 협의하였고, 본인도 미국 재계의 총수들을 많이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들은 한결같이 한국경제의 저력과 장래에 낙관과 기대를 표명하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의 열두번째 가는 통상의 대상국이며, 5년 후인 1986년에는 여섯 번째의 통상국으로 부상하여 유럽 공동체의 어느 나라보다도 중요한 경제의 동반자로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국력이 세계화함에 따라 우리 국민의 생활도 국제화해 갈 것입니다.

본인은 국민 여러분의 해외여행을 대폭 자유화하도록 이미 그 길을 텃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에 따라 국제화를 위한 개방정책을 과감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내일 실시하는 선거를 포함하여 우리가 앞으로 갖게 될 두 차례의 선거는 정의로운 민주복지 국가를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한 신성한 과업입니다. 이러한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것은 이번 선거가 갖는 역사적 의의를 망각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정선거와 타락선거, 그리고 그로 인한 선거불신과 정치불신은 새 시대가 일차적으로 배제해야 할 구시대의 유물입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실시되어 민주주의를 토착화시키는 역사적 관문이 되도록 모든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안정의 기반 위에 전진을 이룩해야 할 때입니다.

이 민족적 전진을 통하여 풍요한 내일을 우리 모두가 창조해야 할 때입니다.

보람된 새 역사를 창조하는 이 과업에 최선의 봉사자가 될 것을 국민 여러분께 다짐하면서 본인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본인의 방미에 보내주신 열렬한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